

# '바이오 미래도시' 실현 박차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자원 발굴~제품 출시까지 전주기 상용화 체계 구축

남원시는 지역 고유의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연구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6월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신성장동력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이라는 비전을 공식 선언하며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으며, 이후 남원시는 바이오소재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가공·인증평가, 기업 네트워킹,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전략적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단순 연구 중심의 지원을 넘어, 연구 성과가 실제 기업 활동과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략의 핵심에는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있다.

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72종목을 대상으로 정밀 효능평가와 성분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특허출원 19건(등록 15건), 해외 특허출원 2건, 기술이전 1건 등 총 21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또한 화장품 원료 표준화 50건, 국내외 화장품 원료 등재 77건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197건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지역 자원 발굴→효능·성분 검증→원료 표준화·등재→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전경.

특허·기술이전→제품 출시·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상용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연구 결과가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기업의 기술개발 부담을 낮추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산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기업이 자연스럽게 유인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연구원은 연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자원식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원료와 제품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연구원의 효능평가·성분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기획부터 원료 개발, 제형 설계까지 단계별 검증을 지원받음으로써 기능성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과 글로벌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

고 있다. 특히 '생강나무 추출물'을 유 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모공 개선 조성 물에 대해 미국과 베트남 해외 특허 출원을 완료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구원은 단순 연구기관을 넘어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와 함께, 확보된 특허 기술과 표준화 원료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 및 제품 상용화를 촉진해 지역 기업의 매출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남원시와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더 지원식을 발굴부터 효능 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맞춤형 기술지원, 국내 제품 기획부터 원료 개발, 제형 설계까지 단계별 검증을 지원받음으로써 기능성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과 글로벌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애향장학회 '지역교육 산실' ... 나눔 열기 후끈

퐁퐁 얼어붙은 한파 속에서도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따르면 지난 27일, 관촌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중섭)에서 300만원, 임실 개인택시 단위조합(조합장 왕동열)이 200만원의 애향장학금을 각각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했다.

관촌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애향장학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임실 개인택시 단위조합 역시 2021년부터 매년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총 1,450만원에 달하며,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1995년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이듬해인 1996년 제1회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난 30여년간 지역 인재육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2,200여명의 학생에게 총 4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군 애향장학회는 매년 임실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2월중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120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실=진총영 기자

## 순창군,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

###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 통합 지원

순창군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순창군은 올해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노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약 1만여 명이며, 총 7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유관 부서 간 협의와 민간 협력기관과의 실무 논의를 거쳐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돌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특화서비스 △의료·요양·보건 연계서비스 △장애인 연계서비스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군민 개인의 상황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특화서비스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영양 도시락 지원, 가사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공급이 부족

했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집중 보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재가의료급여를 연계해 식사와 이동,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연계서비스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다.

군은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통합돌봄사업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군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의료와 요양, 주거, 돌봄을 하나로 연결해 누구나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저출생 극복 시책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출산 지원을 연계한 저출생 극복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에 가

하던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지원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인다.

출산과 양육을 앞둔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100㎡까지 완화해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홍미선 기획예산과장은 "청년들이 남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순창읍 복실마을 도시가스 공급 완료

순창군이 지난해 말 순창읍 복실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농촌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착공해 2026년 1월 초 준공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복실마을 48세대가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6억 4,69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신·편입생 모집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지역 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남원시 계약학과) 2차 신·편입생 40명을 전공 구분 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는 남원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근로자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화장품뷰티산업과 목질공예 산업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2차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원서 접수수는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을 비롯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고 서류심사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개강일은 3월 3일로, 제출 서류와 세부 사항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산업학과는 평일 야간 수업으로 운영돼 재직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남원시민에 한해 학기당 등록금의 50%(60만 원)를 지원, 졸업 시에는 전북대학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 임실농기센터, 토양 가족분노 검사 무료 지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검사와 가족분노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토양검사는 퇴비나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검사결과를 통해 적절한 비료사용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하고,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

천소영 소장은 "토양검사와 가족분노 부속도 검사는 농업인들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에 필수인 만큼 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640-5094~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총영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